

이재명 ‘무한책임’ 발언 놓고 친명 vs 비명 충돌

비명 “대표 사퇴가 혁신의 첫걸음”
친명 “사과 불구 사퇴 주장 중징계”
이 “혁신위원장 의견 듣고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놓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충돌했다.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무한책임’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꺼내 들고 공개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유감을 표명했다며 사퇴를 언급한 이들을 중징계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비명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녁’에 나와 전날 이 대표의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에 대해, “그렇게 엉거주춤 넘어갈 일은 아니다”며 “중대한 잘못을 범했는데 대표가 그냥 말 한마디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정치적 레토릭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부당하다는 친명계의 주장에 대해선, “이 대표가 물러나는 게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지금의 분란과 당의 부조리,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응축하고 있는 부분이 이 대표”라고 반박했다.

당 밖에선 이 대표의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대노총 청년노동자 다운홀미팅 노동정책간담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치성(오른쪽) 건설노조 경기지부 청년위원장, 최지혜(왼쪽) 의료노련 세브란스노조 조합원으로부터 양대노총 청년노동자 노동정책 요구안을 전달받고 있다. 뉴시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하는 정치 탄압이 겹겹이 쌓여 가는 이때 잘하지는 못할 망정 실수하면 누가 박수를 치겠나”라며 “자중자에 바란다. 대표는 사과하고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친명계에선 이번 사태로 당 내홍이 격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사과는 전날 이 대표의 ‘무한책임’ 발언으로 같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 킵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혁신위원장 끈으로 혁신의 발목이 잡히는, 혁신의 늪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돼 버렸다”며 “어제 이 대표가 모든 것이 본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는데 그 정도면 사과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비명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정권이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고 있

는 것이고, 이런 전략과 프레임 속에 빠져 들어가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상민 의원을 겨냥, “그런 (이 대표의 사퇴를 언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당의 경고가 있어야 한다”며 “몇 차례에 대한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중징계도 할 필요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기승전 사퇴”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당 대표를 한 달에 한 번씩 뽑아야 된다”며 퇴진론을 주장한 ‘비명계’와 대립각을 세웠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 역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를 통해 “지금 대표가 사퇴하게 되면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며 “(총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다시 민주당 전당대회를, 어쨌든 그런 소용돌이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당을 더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이날 ‘청년노동자가 묻고, 민주당이 답하다’ 민주당-양대노총 청년노동자 다운홀미팅 노동정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 책임론’에 대해,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 혁신해 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혁신위원장 인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 한다”고 말했다. 또 차기 혁신위원장을 내부 혹은 외부에서 찾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런 점들을 포함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도 대표 차원의 추가적인 유감 표명 필요성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ilbo.com

여야, 후쿠시마 특위 구성... 청문회 개최

여야는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회는 선관위 인사 비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

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며 “다우주 중 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우주 본회의(21일)에 승인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송 수석부대표는 “국회는 후쿠시마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다우주 중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이후 특위 의원을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쿠시마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 ‘상생 교류’ 맞손

광주시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해 함께 손을 잡았다.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8일 광주도시공사 본사 15층 회의실에서 ‘광주전남의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상호협력력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반도체특화단지, 신재생에너지 사업등과 연계한 지역발전사업 공동사업 발굴 및 실행 △업무 관련 전문기술 공유 및 인적교류 활성화 △ESG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공공구매활성화 공동 추진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광주·전남 미래발전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전문인력과 정보의 공유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양 기관은 김대중컨벤션센터 열린홀에서 광주·전

남지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2023 광주·전남 상생 공공구매박람회’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를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과 지역 중소기업 30개사(광주 15, 전남 15)가 참여했으며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기업, 혁신·창업·벤처 기업 등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처음으로 공동주최로 열린 박람회 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에게 공공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유통센터를 초청해 중소기업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조달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공공판로 개척을 위한 정보와 상담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성수 기자

尹 “반도체 경쟁은 국가총력전... ‘민간 혁신·정부 전략’ 필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다. 국가총력전”이라며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첨단산업 경쟁력은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분야 중 우리가 과연 메모리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초격차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고심해야 한다)”며 “시스템반도체 육성 전략을 어떻게 세우 하느냐, 소재부품 장비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메모리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하려면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와 제도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시장과 관련,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한옥·곰탕·납시·오토캠핑... “전남서 체류형 촌캉스 즐기세요”

전남도, 6월 체험관광지 추천

전남도가 시골 정취를 만끽하는 6월 ‘전남 촌캉스’ 추천 관광지로 고흥 해장만 오토캠핑장, 나주 목사내아, 장성 청백한옥, 함평 주포한옥마을을 선정했다.

고흥 해장만 오토캠핑장은 간척지에 조성한 수변공원에 자리하고 있다. 오토캠핑장 21면, 일반캠핑장 27면, 글램핑장 14동이 조성됐다.

캠핑장은 넓은 간척지와 바다 사이에 위치해 마치 바다 한 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바다를 둘러싼 산책로는 해장만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 명소다. 가까운 선착장에서 낚시를 즐기며 어촌 정취도 만끽할 수 있다.

나주 목사내아 금학헌(琴鶴軒)은 조선

시대 나주를 다스리던 목사가 살았던 가옥을 2009년 복원해 전통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금학헌은 ‘거문고 소리를 들으며 학처럼 고고하게 살고자 하는 선비의 정신이 깃든 집’이라는 뜻이다.

하룻밤 머물며 조선시대 상류층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목사내아를 500년간 지킨 팽나무는 소원이 이뤄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좋은 기운을 받고자 찾는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목사내아 바로 앞 곰탕거리에서 곰탕의 원조 ‘나주곰탕’을 맛볼 수 있다.

맑을청(淸)·흰백(白)자를 쓰는 장성 청백한옥은 ‘맑고 깨끗한 집’이라는 뜻으로 조선 3대 청백리로 알려진 박수량 선생의 청빈함을 전해들은 명종이 후손들에게

하사한 집을 2010년 증건한 한옥체험관이다.

안채·사랑채·행랑채 등 15객실로 이뤄졌다. 흥길동테마파크에 위치하고 있어 흥길동 생가·산채체험장·전통 무술 국궁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함평 주포한옥마을은 주포항과 돌머리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서해안의 정취를 느끼며 한옥 민박 체험이 가능하다.

마을에서 보이는 함평만의 낙조는 낭만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잘 가꾸진 꽃, 나무와 돌담을 따라 산책을 하며 고즈넉한 한옥마을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인근에서 달근 유향 돌을 바닷물에 넣어 만든 수증기를 쬐는 함평의 전통해수찜질로 일상의 피로를 날려버릴 수 있다.

최황지 기자